

# “IB프로그램, 우리교육에 꼭 필요”

서거석 교육감, 호주·뉴질랜드 방문 후 소회

## “내년부터 시범 추진... 우선 교사 연수부터 대입 전형에 IB교육과정 이수 부분 포함 건의”

“이제 우리 교육도 수업은 토론식으로 하고, 평가는 서술형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 18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8개 기관을 방문한 후 느낀 IB프로그램에 대해 “우리 교육에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 제주, 경기 등 선도 교육청의 성공 사례도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 교육감은 내년부터 IB 교육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사전 접수를 받은 결과 초등학교 3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9개 학교에서 IB교



육을 하겠다고 신청했다.

특히 서 교육감은 이들 학교를 IB 준비학교로 칭하며 “교사 연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외부강사를 초청한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현재 수능위주의 입시문제로 신청 학교가 적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입 전형에 IB교육 과정 이수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B프로그램은 스위스에서 시작해 55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현재 160개국, 5000~6000개 학교에서 IB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 진출을 목적으로 학생들을 국제적 인재로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언급했다.

더군다나 공교육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학부모들의 부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서 교육감은 호주, 뉴질랜드 학교에서 학생들이 생활지나 일탈행위 대처법, 그리고 교권과 학생인권 조화 등을 살펴봤다고 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 관리·운영 조례 제정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403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을 통과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매체를 통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더불어 도민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안에는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 참여 행사를 위한 지원사항 △소셜미디어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서포터즈 구성 운영 △홍보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한 취재 활동 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에 따라 도교육청은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 본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적극 활용해 학부모와 도민에게 양질의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도교육청, 내일 전북 학생

#### 시(詩) 페스티벌 개최

시를 기반으로 다채로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인문학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2023년 전북학생 시(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전주지립농업진흥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도내 초·중·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대회 마당, 강연 마당, 체험 마당, 공연 마당 등으로 이뤄진다.

### 도교육청, 에듀테크

#### 멘토링 제도 운영... 12월까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에듀테크 멘토링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에듀테크 능력을 가진 교원(멘토)과 배움을 희망하는 교원(멘티)의 상호 나눔을 통해 멘티 교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멘토링 제도는 9~12월 도내 초·중학교 105곳이 참여한다.

멘토로 참여하는 교원은 자신의 역량을 공유하고, 멘티로 참여하는 교원은 멘토의 지도에 따라 배움을 얻을 수 있다.

멘토링 주제는 다양하며,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앱과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와 토론으로 진행하면 된다.

특히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방법 △스마트기기 활용 학습운영 방법 △수업 및 업무협용 가능 에듀테크 역량 강화 연수 △에듀테크 활용 수업 공개 등 에듀테크 관련 연수는 1회 이상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남원수학체험센터'가 21일 개관식을 가진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 최경석 남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놀며 질문하고 깨닫는다... 남원수학체험센터 개관

### 남원·임실·순창지역 학생들에 체험활동 기회 제공

전북 수학교육의 메카가 될 '남원수학체험센터(수학누리)'가 문을 열었다.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남원수학체험센터'가 21일 개관식을 갖고, 합치해 출발했다.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는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익산) 내 전북수학체험센터 한 곳만이 있어 전체 학생 수용

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남원수학체험센터가 설립되면서 남원은 물론 임실, 순창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수학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남원수학체험센터는 '수학은 놀이다, 수학은 삶이다, 수학은 지혜다'라는 테마로 일종달상 수학배움터, 우당탕탕 수학놀이터, 차근차근 수학배움터, 흥미진진 수학역사터, 수리수리 수학삼터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1층과 2

층에 전시체험물을 조성했다. 수학과 더불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야외 수학체험터도 갖추고 있다.

또한 남원의 다양한 지역문화와 연계하여 전시체험물을 구성했으며, '광한루원 수학산책(저자: 남원수학유람도)' 발견해 지역과 함께하는 남원수학체험센터로 발돋움해 나갈 예정이다.

화요일~금요일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학체험교실과 단체관람을 운영하며, 토요일에는 가족단위로 자유롭게 관람을 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도내 교사 수업전문성 신장

### 도교육청, 중·고교 교사 100명 대상 수업코칭 특강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강이 마련됐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1일 청주(별관) 시청각실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코칭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코칭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미래교육을 주도할 교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에듀테크 활용 수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교육계 최초로 수업이론과 내면 치

유의 상담 심리 이론을 통합한 수업코칭을 도입한 신울진 대표(수업과 성장연구소)가 강사로 참여했다.

신 대표는 디지털 교육환경에서 교사 실제감 구축을 시작으로 수업의 본질을 깨닫고 교사 스스로 수업을 성찰하게 하는 셸프 수업 코칭의 방법과 원리에 대해 강의했다.

신 대표는 “‘교사 실제감’이란 수업에서 물리적으로 교사가 존재함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교사가 왜 이 내용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

각하는지 등 교사의 수업 의도와 목표를 명확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0월 13일과 20일에는 전주비전대 행복가속사에서 실습형 강연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울진 대표를 비롯해 수업과 성장연구소 강사들을 초빙해 수업 코칭의 이론을 익히고 실습을 통해 내면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거석 교육감은 “미래교육’은 교실혁명을 통해 실현된다. 교실혁명의 핵심은 수업혁신이고, 이를 위해 교사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특강을 통해 현장의 교사들이 에듀테크 기반의 시를 활용한 수업 역량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중기 계약학과

#### 학위 연계 과정 선정

전주대학교 중소기업 계약학과가 지난 19일 탄소융합분야 학위 연계 과정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계약학과는 2010년 탄소나노복합소재공학과(석사과정)를 시작으로 2013년 탄소융합공학과(학사과정)와 2015년 탄소융합공학과(박사과정)를 순차적으로 개설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학교 중소기업 인제대학(탄소융합분야)은 사업 전체 총괄책임자(안계혁 교수)와 학위별 총괄책임자(학사 총괄 이해성 교수, 석사 총괄 김홍건 교수, 박사 총괄 권익구 교수)를 두고, 참여기업의 대표와 학생 및 지역 기업 관계자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육과정과 사업의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해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등의 환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주대학교 중소기업 계약학과가 지난 19일 탄소융합분야 학위 연계 과정에 선정됐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또한 핵심 주체인 탄소 산업을 기반으로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6대 탄소 소재(인조흑연, 활성탄, 카본블랙, 탄소섬유, 탄소노튜브, 그래핀)의 특성을 활용해 응용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인제대학 총괄책임자인 안계혁 교수는 “기존 운영 과정을

통해 탄소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과 안정화를 도모했다”며 “이번 인제대학 선정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인재를 길러 전라북도 탄소 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향후 전북의 탄소 산업과 이차전지 등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창출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K-학술혁신연구소 사업’ 선정

###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25억원 규모 지원받아 한국사회 영향 준 과학기술 면모 다룬 25개 강좌 제작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소장 신동원)가 2023년 K-학술혁신연구소 사업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한국학 각 분야의 강의 영상을 제작해 케이무크(K-MOOC)에 탑재하고, 관련 국·영문 연구서 및 영문 소스북을 편찬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5년 간 매년 5억원씩 모두 25억원을 지원받는 대형 사업이다.

K-MOOC는 2015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형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로, 언제 어디서나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국가 거점 국립대학으로 유일하게 이번 사업에 선정된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는 이 사업을 통해 ‘과학과 기술의 한국사’라는 제목으로 전근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과학기술의 여러 면모를 다루는 25개 강좌를 제작할 예정이다.

특히, 제작 예정인 이 강좌에는 한글과 영어, 그리고 주제에 따라 중국어나 러시아어 자막을 달아 전 세계에 한국 과학기술사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도 각 강좌를 소개하는 영상을 송출하고 K-MOOC를 통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연구책임을 맡은 문민용 교수(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는 “이 사업을 통해 한국 전통 과학문명을 중국의 이유로 보는 해외 학계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고, 나아가 한국 현대 과학기술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학술혁신연구소사업에는 기존 8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국제),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동국대, 인하대)이 과제를 영향 준 과학기술의 여러 면모를 다루는 25개 강좌를 제작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글로벌대학30 사업 본 지정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 전북대, 글로벌30 본 지정 ‘총력’

### 학생에 이어 교직원·교수회 대상 공청회도 열어

#### JBNU 지역발전연구원 설립 등 구체적 계획 발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벌대학30 사업 본 지정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세부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4일 학생 대상 공청회를 가진 전북대는 19일 교직원, 20일 교수회를 대상으로 공청회도 잇달아 열어 글로벌사업에 통한 대학 혁신의 당위성과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양오봉 총장의 인사로 시작된 이날 공청회에서 백기태 기획처장이 글로벌대학30 사업의 본 지정을 위해 오는 10월 6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세부 실행계획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백 처장은 새만큼 대학인문도시 구축을 비롯해 서남대 폐교 유류 부지의 재생, 그리고 14개 기초자치체 발전을 견인할 JBNU 지역발전연구원 설립 등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또한 단과대학 간 벽을 허물어 105

개 학과별 모집단위를 광역화 해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려는 교육 개혁과 지역 맞춤형 모듬형 학사구조로의 변화, 첨단 배터리융합공학전공이나 K-방위산업학과 등 내부 교육 혁신 방안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유학생 5천 명 유치 등 전북대를 글로벌 허브로 변화시키기 위한 단과대학 계획도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학생과 직원 그리고 교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구성원들의 뜻을 받아들여 본 지정을 위한 세부 계획서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대학30 사업 본 지정대학에 반드시 선정돼 우리대학이 지역이 상생발전 을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닦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글로벌대학30 사업 예지 지정 대학에 선정된 전북대는 오는 10월 6일까지 본 지정 실행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내일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 개최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가 전북대학교에서 열린다.

전북대 수의과대학 학생회가 주최하고,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대한수의사회, 전북수의사회 등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전북대 소운동장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체험 부스와 강연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는 전문가 강연을 통해 반려동물 분리불안 및 문제행동 해결과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키

울 수 있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전파되고, 또 반려동물 무료 건강검진 및 상담, 유기동물 입양상담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인식표와 장난감, 발 세정제 만들기 체험과 스탬프 투어, 반려동물 골든벨, 어질러티 등 다양한 부스 행사를 통한 이벤트도 풍성하다.

한편 수의대는 체험객들에게 부스를 방문하면 스탬프를 찍어주고, 일정 개수 이상 스탬프를 찍은 이들에게 상품도 줄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